

후쿠오카현에 있어서 日韓 어업교류의 경위와 전망*

曾根 元徳**

Historical Exchange and Prospects of Fisheries between Japan and Korea -Case in Fukuoka Prefecture-

Motonori Sone

< 목 차 >

- | | |
|---------------------|-------------------------------|
| I. 서언 | V. 지금까지의 사업성과 |
| II. 어업우호 친선사업 | VI. 후쿠오카현에 있어서 향후 일한 어업교류의 방향 |
| III. 일한 어업세미나 | |
| IV. 일한 해협 수산관계 교류사업 | |

I. 서 언

후쿠오카縣의 어업은 대마도 해협 주변수역을 주어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어업과 수산자원 및 어장의 이용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5년의 일한 어업협정의 체결 이후, 1977년 세계의 해양질서 변화에 따라 양국 모두 200해리 체제를 맞이하게 되었고 양국의 연안어업자는 동 수역에서 안전조업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 때문에 양국의 어업관계자가 교류를 통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어업협력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표 1> 후쿠오카현의 한국과 어업교류사업의 추이

년 월	사 업 내 용
1977~1992	어업우호 친선사업
1989~1999	일한 어업우호 교류사업
1993~2001	일한 해협 연안수산관계 교류사업

* 본 논문은 2001년 12월 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일 공동심포지움('21세기의 수산업 : 한일의 현상과 장래의 선택')에서 발표된 것임.

** 福岡縣 水産林務部 水産海洋技術센터

<표 2> 어업우호 친선사업

년월	사업내용
1977	서일본 어업 우호단 방한
1988	제1회 후쿠오카현 방한
1989	제2회 한국 방일
1990	제3회 후쿠오카현 방한
1991	제4회 한국 방일
1992	제5회 후쿠오카현 방한

후쿠오카현과 한국과의 어업교류는 각 시대의 어업사정과 사회경제 등의 배경 하에서 후쿠오카현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표 1>. 어업교류는 1977년에 후쿠오카현 水産部局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이나 예산의 편성 등에서 일부 사업기간이 겹쳐졌지만, 1977년부터 시작한 어업우호 친선사업은 15년 동안 계속되었고<표 2>, 1990년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계속된 일한 어업우호 교류사업, 1993년부터는 현재까지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일한해협 연안수산물교류사업이라는 3가지 사업이 있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행정, 의회, 업계가 일체가 되어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사업별로 고찰해 나간다.

II. 어업우호 친선사업

1977년 당시는 세계적으로 200해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일한 양국은 어업우호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일한 어업협정을 영속시켜 주변 해역에서의 안전조업을 확보하는 것이 어업우호 친선사업의 목적이었다. 서일본의 4현(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은 어업우호 방한단을 결성하여 1977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서울의 농수산부, 외무부, 수산청을 비롯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수산물진흥원, 또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등을 방문하였다<표 3>. 방한단의 구성은 각 현의 현의회 의장, 국립수산물위원장, 행정의 부지사와 부장, 업계의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자 한국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협의 조합장, 수산회사의 사장 등 모두 37명이었다.

당시는 한국 국내에서도 200해리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 중이었으며, 12해리 영해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방문한 각 기관의 대표자는 한국측이 한국과 일본, 특히 서일본 4현과는 ‘一衣帶水’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호친선과 상호협력을 한층 깊게 하려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업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충분한 이해와 협력관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2해리 영해법의 실시에 있어서도 상호주의를 기초로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인식을 방한단은 느낄 수 있었다. 200해리 문제의 대응은 일본과의 전통적 협력관계 속에서 사전협의를 하여 상호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한국 방문보고서는 총괄하고 있다.

<표 3> 서일본 어업우호단 방한

사 황	내 용
일 시	1977년 11월 7일~11일
방문지	서울 : 농수산부, 한일 의원연맹, 외무부, 수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 : 국립수산물진흥원,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 도청
참가자	나가사키현(11명) : 외 2명, 현(부장 외 2명), 업계(어협장 외 1명, 수산회사사장 외 2명) 사가현(10명) : 의회(부의장 외 1명), 현(실장 외 1명), 시(1명), 업계(어협장 외 3명, 수산회사 사장) 후쿠오카현(9명) : 의회(부위원장 외 1명), 현(부지사외2명), 업계(漁連회장 외 1명, 업종협회 장 외 1명) 야마구치현(7명) : 의회(議連회장 외 1명), 현(차장 외 1명), 시(市場장), 업계(어협장 외 1명)

1977년 이후에도 서일본 어업우호 방한단은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더욱이 후쿠오카현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 동안 단독으로 한국과 어업교류사업을 실시하여 후쿠오카현의 방한과 한국의 방일이 교대로 모두 5차례가 실시되었다.

Ⅲ. 일한 어업세미나

1990년부터는 일한 어업우호 교류사업이 후쿠오카현 水産林務部와 제주도 증식국과 기술 교류로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1989년에 후쿠오카현 宗像郡 玄海町の 鐘崎어업협동조합과 제주도 북제주군 표선면의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이 상호부조, 협력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행정단계에서 지원사업으로서 개시된 것이다. 제1회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다른 주제로 상호 방문하여 10회까지 개최되었다<표 4>.

<표 4> 일한 어업우호 교류사업

년도	사 업 내 용 (개최지)	검 토 과 제
1989	후쿠오카현 鐘崎어협과 제주도 성산포수협 자매결연	
1990	제1회 일한 어업 세미나(제주도)	자원관리형어업의 현상과 과제
1991	제2회 일한 어업 세미나(후쿠오카현)	양식어업의 현상과 향후의 과제
1992	제3회 일한 어업 세미나(제주도)	일한 어업세미나의 향후의 운영
1993	제4회 일한 어업 세미나(후쿠오카현)	일한에 있어서 정착성자원의 이용
1994	제5회 일한 어업 세미나(제주도)	관광어촌의 개발
1995	제6회 일한 어업 세미나(후쿠오카현)	어장개발의 현상과 장래 전망
1996	제7회 일한 어업 세미나(제주도)	전복의 육상양식 실태와 향후 전망
1997	제8회 일한 어업 세미나(후쿠오카현)	수산연구 시설의 건설과 운영
1998	제9회 일한 어업 세미나(제주도)	수산연구 업무교류
1999	제10회 일한 어업 세미나(후쿠오카현)	백화대책과 향후 수산연구 업무교류

제2회 세미나 이후에도 각 주제로 진행되었지만, 일한 해협 수산관계 교류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10회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결되었다. 제10회의 세미나는 1999년 11월 9일부터 11일 동안 실무자 20명이 참석하여 후쿠오카현 수산해양기술센터에서 개최되었다<표 6>. 제주도에서도 수산시험 연구시설이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연구과제 등의 정보교환을 비롯하여 백화현상을 주제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양국은 백화현상의 실태와 대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으로서의 교류는 종료되지만 연구기관의 상호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

<표 6> 제10회 일한 어업세미나

사 항	사 업 내 용
개최 연월일	1999년 11월 9일~11일
개최 장소	후쿠오카현 수산해양기술센터
참가자	후쿠오카현 : 어정과, 수산진흥과, 수산해양기술센터 제주도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자원연구센터
의제	「후쿠오카현 수산해양기술센터의 개요」 「후쿠오카현에 있어서 정착성 어장의 현상과 백화현상 대책」 「제주도에 있어서 백화현상의 실태와 복원 법안」 「연구기관 상호교류」

Ⅳ. 일한해협 수산관계 교류사업

1990년 큐슈 북부의 3개현 지사 간담회에서 대한해협을 마주한 한국의 남해안지역과 교류 추진이 논의되어, 3개현이 공동하여 각 분야에 대해 교류할 것을 합의하였다. 1991년에 일한 정부의 협력을 얻었고,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사전준비의를 한 다음 8월 제주시에서 제1회 일한해협 연안현 시도지사 교류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3개현이 한국은 부산직할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1시 3도가 참가하였다. 지사 교류회의는 년 1회, 일한 교대로 개최되었으며 실무자 회의에서는 3현과 1시 3도 모두 참가하는 공동사업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수산, 청소년, 환경 기술의 3분야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 9가지 교류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1999년부터는 야마구치현이 새롭게 참가하였다.

수산관계의 교류사업은 1993년에 나가사키현에서 개최되어 2001년에 9번째를 맞이하고 있다<표 7>. 사업의 진행방식은 일본측에서는 각 현의 水産擔當部局이 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담당자회의, 일한 실무자회의에서 협의를 하고, 부국장이 참석하는 교류회의가 주관이 되어 현재 3가지 공동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표 7> 일한해협 연안현 시도지사 교류회의 및 수산관계 교류사업

연도	지사 교류회의·개최지	수산관계 교류사업·개최지
1992	제1회 제주도 제주시	
1993	제2회 사가현 우레시노초	제1회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1994	제3회 부산 직할시	제2회 제주도 제주시
1995	제4회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제3회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1996	제5회 경상남도 창원시	제4회 부산광역시
1997	제6회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제5회 사가현 카라츠시
1998	제7회 광주광역시	제6회 진라남도 여수시
1999	제8회 사가현 카라츠시	제7회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2000	제9회 제주도 제주시	제8회 제주도·부산광역시
2001	제10회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제9회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2001년 제9회 교류사업을 소개하면, 어류공동 방류는 일본측이 자주복 3.4만미, 한국측이 조피볼락, 넙치, 참돔 등 1.3만미를 방류하였고, 또한 시모노세키시에서 개최된 교류회의 참가자 전원에게 의해 자주복 2,000마리를 방류하였다<표 8>.

교류회의는 8개현 市道 부국장, 주무과장, 수산시험장 등이 참석하여 종묘 공동방류사업과 수산관계자 및 어업자 교류사업의 진행방식, 수산시책(자원관리, 어장, 어촌정비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업자 교류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의 4개현에서 18명이 참가하여 경상남도 통영시를 방문하였다. 굴양식 및 출하실태에 관한 현지연수, 지역어업자들과의 의견교환을 하였다.

<표 8> 제9회 일한 해협 연안현 수산관계 교류사업(2001년)

사 항	실시 세월·개최 장소	내 용
담당자 회의	4.27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8.27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9.28 야마구치현 오고리시 10.29 사가현 사가시	사업 계획의 검토 " " "
추진 협의회	6.6 야마구치현 오고리초	사업 결과의 보고, 계획의 검토
일한 실무자회의	제주도	사업 계획의 조정
어류 공동방류	11. 7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인근해역	자주복 종묘 2,000마리 (각 현 지선어장 복어종묘 33,500미)
교류 회의	11.6~9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참가자 : 일본측 12명 한국측 9명
어업자 친목교류	11.13~16 경상남도	방문지 :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참가자 : 17명

V. 지금까지의 사업성과

1977년 이후, 오늘까지 25년간, 후쿠오카현은 3가지 사업에서 한국과 어업교류를 진행시켜 왔지만, 그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한의 해협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의 연안지역이 자원 및 조업질서의 유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에서 각각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후쿠오카현에서는 계속된 어업교류의 결과 한국과 친밀도를 높여 왔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이후 35년간,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교류를 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만일, 1명이 교류하여 5명과 의견교환을 한다면, 1년에 20명의 교류사업에 의해 35년간 3,500명과 의견교환을 하게 된다. 교류에 의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발견하여 서로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의 폭을 넓히기 힘든 어업현장에서, 어업 속에 기본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상호부조의 관점을 넓힌다고 생각한다. 행정면에서도 탁상공론뿐만 아니라 현지의 실태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시책이나 사업전개에는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수산 분야에서 빠뜨릴 수 없다.

둘째, 지역의 개별교류에서 광역, 조직교류로 발전하였다. 1977년 당시 4개현의 방한단으로 결성되었지만, 야마구치현과 경상남도, 후쿠오카현과 제주도의 2가지 밖에 없었다. 知事 교류회의를 계기로 양국 모두 해협을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는 8개현, 시, 도 등이 모여서 자원이나 어업 또는 시책 및 진흥사업 등에 관한 공통된 과제에 대해서 폭넓은 행정 과제나 기술교류가 가능해졌다.

셋째, 어업정보의 교환에서 기술교류 및 공동사업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종래의 어업정보 교환은 조업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광역권 교류와 폭넓은 행정이나 기술교류가 가능해지면서 기술협력이나 기술연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공통자원의 공동증식에 대한 사업화도 검토되어지게 되었다.

넷째, 민간단계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해졌다. 수산의 경우, 특히 연안어업자가 서로 교류함으로써 서로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더욱 높아져 소득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양 지역의 기술은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 지역 독자적인 대응은 새로운 개성을 가질 수 있으며, 기술도입에서 교류는 빠질 수 없다.

VI. 후쿠오카현에 있어서 향후 일한 어업교류의 방향

일한해협 연안지역도 1996년 유엔해양법의 발효에 따라 새로운 영해(12해리, 직선기선)나 200해리 EEZ가 설정되었다. 더군다나 양국간에는 1999년에는 新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독도주변 및 제주도 남방에 잠정수역을 설정하여 일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적절한 자원관리를 실시한다. ②상대국의 EEZ 내에서의 어획할당은 3년 이후 등량으로 한다. ③EEZ 내에서 조업위반은 양국 정부가 국내법에 입

각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기국주의). 이 때문에 후쿠오카현 연안어업자는 筑前海 주변해역에서 주로 조업하게 되었으며, 특히 복어연승어선(60척)의 경우는 양륙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新협정에 따른 어업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양국 공동의 자원관리나 어업진흥의 진전이 필요하다. 일한해협 연안수산물교류사업은 확실히 현재의 어업환경을 감안한 대응이며,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일한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각각 주도적으로 자원관리, 증식을 도모하고 각 기술이나 정보교환을 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양국 공통자원의 관리나 증식에 대해서는 양국 자치단체의 협력체제가 빠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실무자 회의에서는 현재 의제가 되고 있는 6개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팀을 편성해서 서로 현지를 방문하여 한층 진전된 정보교환을 하고 이를 기초로 공동연구 및 공동사업에 대한 대응과 그 평가를 함으로써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자주복 자원은 광역 회유종이며, 특히 큐슈 북부와 한국 연안지역으로 회유를 하며, 양국에 있어도 중요한 어획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 및 사업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후쿠오카, 나가사키, 야마구치현의 3개현이 공동으로 자주복 자원의 증식,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 및 어업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양국이 교류사업을 전개하여 일한해협 연안 자치단체의 공동사업화가 진행되어 가까운 장래에 자주복이 안정적으로 어획되어져서 어업자의 소득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국민들이 이를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